

##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현장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 등을 반영한 데 이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

김완섭 차관은 10.30(월) 오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생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물가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김 차관은 제기된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는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과 재기 지원사업\*,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취약차주 1만 명 저리 대환대출 신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등  
\*\* 배추 2.9천 톤 방출(10월~), 농축산물 할인지원(10.19~) 등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고물가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공감하면서, 건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3년 예산에 대한 집행 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① (에너지비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② (금융비용)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③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담당 부서	재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하태원 (044-215-5480)
	재정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희 (sh22moon@korea.kr)